

부모의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조아라¹, 양명숙^{1*}, 전지경²
¹한남대학교 상담학과, ²한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he Influence of Inter-Parental Conflicts on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A-Ra Jo¹, Myong-suk Yang^{1*}, Ji-Kyung Jeon²

¹Dept. of Counseling, Hannam University, ²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전, 충청권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총 7개 곳을 선정하여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총 73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test와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의 부부갈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회복탄력성은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이라도 회복탄력성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은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부모의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정책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청소년, 부모의 부부갈등, 정신건강,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Inter-Parental Conflict(IPC) on the Mental Health(MH) of 2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Data collected from 730 students in Daejeon and Chungcheong region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hierarch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18.0. As the results, 1.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IPC, MH, and resilience depending o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 2. resilience showed mediating effects on the process where IPC influenced MH.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lso was suggested for MH of adolescents with follow-up study.

Key Words : Adolescent, Inter-Parental Conflict, Mental Health, Resilience, Medi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전 생애에서 매우 특별한 시기이다. 영아기를 제외하고 가장 큰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성

숙을 경험하며 사회적으로도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1]. Hall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현하면서 인간발달의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묘사하였고, 이 시기에는 고독, 혼돈, 소외의 감정 그리고 자아의식과 현실 적응 사이의 갈등 등 다양한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2017 Hannam University research grant.

This paper expanded Jo A-Ra's Ma dissertation.

*Corresponding Author : Myong-Suk Yang (msyang@hnu.kr)

Received November 26,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November 26,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8

다고 주장하였다[2].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최근 10년간 청소년 5명 중 2명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37.0%), 5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26.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울양상은 초등학생(11%), 중학생(15.1%), 고등학생(19.7%)으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증가했다[3]. 이연숙[4]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입시 그리고 진로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하였고, 한상철 등[5]은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세대 간 갈등과 또래 집단과의 갈등,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서 비롯되는 학업성취의 부담과 학교 적응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고, 이는 심리적 갈등과 욕구 불만,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주소영 등[6]은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학업 성취와 사회적 관계에 예민해져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청소년기는 다양한 정신건강 이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7,8].

한편, 가족체계 이론에 따르면, 한 개인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과정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9]. 또한 생태체계학적인 관점에서도 가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부모의 부부갈등을 들 수 있다[2]. 부부 갈등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 간의 갈등보다 높은 편이며[10,11],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Richman 등[12]은 화목한 가정의 자녀에 비해 부부갈등이 높은 가정의 자녀는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2~5배 높게 나타내었으며, 다양한 연구들에서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13], 자아존중감[14,15], 비행[16], 공격성, 우울, 불안[17]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Grych와 Finchman[18]은 단순히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노출된 여부를 가지고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불충분 하다고 하였고, 이숙재[19]도 부모의 부부갈등 자체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자녀는 부모가 부부갈등을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과 대처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한다

[15].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 경험은 개인에 따라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관점과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촉발요인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배움과 알아차림의 자원으로 활용 될 수도 있다[20]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된 대표적인 개념이 회복탄력성이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은 맞벌이, 빈곤가정,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부갈등과 같은 역경 상황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21,22]. 또한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도 자녀가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데 조절효과를 지닌다는 연구결과[23]도 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환경에 따른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적응해 가는 개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심리학적 개념이며[24], 긍정적인 적응과 역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으로[25] 회복탄력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성취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26] 보고되고 있다. Gjerde 등[27]은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새롭게 변화된 상황이나 미해결된 상황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역경 상황에서도 불안수준을 낮추어 주고, 문제행동을 줄여주며, 삶에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해 준다고 주장하였다[28]. 또한 다양한 연구[29-31]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을 경우 어려움이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여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회복탄력성은 역경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개가 되는 요인[32]이라는 점에서 회복탄력성은 부모의 부부갈등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고등학생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 내의 부모의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를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보호요인 중 하나로 회복탄력성을 선정하여 부모의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더불어 본 연구가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발달을 위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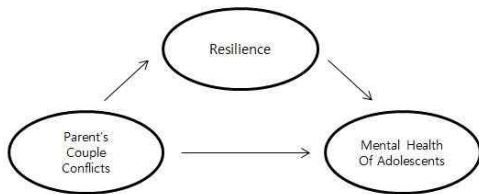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부부갈등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의 부부갈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회복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다.

셋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회복탄력성 그리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대전, 충청지역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중 7곳을 선정하였다. 고등학생 2학년생을 대상으로 2016년 9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한달 간 총 930부의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으며, 각 학교의 담당 선생님에게 의뢰하여 본 연구의 목적, 설문내용,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을 실시하는 학생들에게는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연구 목적과 연구 과정을 설명하고, 설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9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한 문항이라도 빠뜨렸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170부를 제외하고 총 730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부모의 부부갈등(CPIC)

부모의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Grych 등[33]이 개

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권영옥과 이정덕[34]이 번안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을 다시 류승희[16]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개 하위변인인 빈도, 강도, 내용, 문제해결, 지각된 위협, 자기비난, 대처효율성, 삼각관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44문항이다.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청소년이 부모의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류승희[16]의 연구에는 8개의 하위변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58~.82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는 .68~.88, 전체는 .94로 나타났다.

2.2.2 정신건강 질문지(BHQ-14)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Kopta Lowry[35]이 개발하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 대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측정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BHQ-14(Behavior Questionnaire-14)를 박명실[3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하위변인인 주관적 웰빙, 증상, 생활 기능화, 우울 그리고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척도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청소년의 정신건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명실[3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가 .57에서 .8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5에서 .89, 전체는 .89로 나타났다.

2.2.3 회복탄력성 척도(YKRQ-27)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우열 등[37]이 개발한 YKRQ-27(Youth Korea Resilience Quotient-27)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 하위변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7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우열 등[37]의 연구에서는 하위변인의 Cronbach’s α 계수가 .64에서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1에서 .87로, 전체는 .91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 회복탄력성,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 사후검증으로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부부갈등, 회복탄력성,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회복탄력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와 Kenny[38]이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3단계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나야 한다. 이때, 독립변인의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으나 효과가 줄어들게 되면 부부매개라고 하며, 독립변인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완전매개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변수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부모의 부부갈등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t=2.33, p<.05$),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한 부모 가족, 원

가족, 기타 순으로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 ($F=4.68, p<.05$). 부모님의 결혼상태가 이혼인 경우 부모의 부부갈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F=8.52, p<.001$),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F=5.58, p<.01$). 회복탄력성의 경우에도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높았다($F=11.24, p<.001$). 정신건강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신건강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t=2.50, p<.05$), 부모님의 결혼상태가 초혼, 재혼, 기타, 이혼 순으로($F=5.59, p<.001$)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높았다($F=6.33, p<.01$).

3.2 부모의 부부갈등, 정신건강,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검증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모든 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의 부부갈등 전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전체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43, p<.01$), 부모의 부부갈등 하위변인들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전체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21 \sim -.39, p<.01$).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하위변인들과 부모의 부부갈등에서도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25 \sim -.41, p<.01$). 반면, 회복탄력성 전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전체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r=.61, p<.01$),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정적상관이 나타났고($r=.82 \sim .85, p<.01$),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하위변인과 회복탄력성 전체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38 \sim .65, p<.01$).

<Table 1>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for participants

(N=7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Inter-parental Conflicts			Resilience			Mental Health		
			M	(SD)	t/F	M	(SD)	t/F	M	(SD)	t/F
Gender	Male	333	2.29	(.53)	2.33*	3.54	(.55)	-.24	3.74	(.66)	2.50*
	Female	397	2.19	(.58)		3.55	(.52)		3.61	(.69)	
Family form	family-of-origin	627	2.23	(.55)	4.68*	3.55	(.53)	.42	3.68	(.67)	1.24
	Single parent family	34	2.51 ^b	(.60)		3.61	(.50)		3.49	(.77)	
	and many others	69	2.17 ^a	(.58)		3.50	(.53)		3.65	(.70)	
Parents' marital condition	one's first marriage	662	2.21 ^a	(.55)	8.52***	3.56	(.53)	1.21	3.70 ^b	(.67)	5.59***
	second marriage	14	2.34 ^{ab}	(.34)		3.37	(.33)		3.53 ^{ab}	(.61)	
	get divorced	36	2.66 ^b	(.52)		3.46	(.56)		3.23 ^a	(.79)	
	and many others	18	2.44 ^{ab}	(.69)		3.45	(.44)		3.60 ^{ab}	(.72)	
Average monthly income	under 2 million won ~	41	2.43 ^b	(.51)	5.58**	3.36a	(.49)	11.24***	3.51 ^a	(.70)	6.33**
	2 million won ~under 5 million won	400	2.27 ^a	(.55)		3.49a	(.53)		3.61 ^{ab}	(.66)	
	5million won more~	289	2.17 ^a	(.57)		3.66b	(.53)		3.78 ^b	(.68)	

* $p<.05$, ** $p<.01$, *** $p<.001$

Duncan 사후검증 : a=ab<b, b=ab<a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variables (N=730)

		Mental Health					
		14	15	16	17	18	14
Inter-Parental Conflicts	1.	-.29***	-.32***	-.22***	-.35***	-.28***	-.35***
	2.	-.27***	-.31***	-.22***	-.32***	-.27***	-.34***
	3.	-.33***	-.29***	-.24***	-.32***	-.28***	-.34***
	4.	-.14***	-.26***	-.15***	-.22***	-.27***	-.25***
	5.	-.19***	-.36***	-.16***	-.31***	-.35***	-.33***
	6.	-.30***	-.36***	-.27***	-.37***	-.31***	-.39***
	7.	-.11***	-.21***	-.13***	-.19***	-.23***	-.21***
	8.	-.17***	-.23***	-.10***	-.21***	-.24***	-.23***
	9.	-.31***	-.41***	-.25***	-.40***	-.39***	-.43***
Resilience	10.	.39***	.30***	.45***	.35***	.26***	.83***
	11.	.69***	.45***	.59***	.55***	.38***	.85***
	12.	.42***	.26***	.57***	.31***	.29***	.82***
	13.	.61***	.41***	.65***	.49***	.38***	.61***

*p<.05, **p<.01, ***p<.001

1.frequency, 2.strength, 3.problem-solving, 4.content, 5.perceived threat, 6.dealing with efficiency, 7.self-condemnation, 8.a three-cornered relation, 9.total parents' couple conflicts, 10.control over colony, 11.positivity, 12.sociality, 13.total resiliency, 14.subjective well-being, 15.psychological symptoms, 16.life function, 17.black bile, 18.anxiety, 19.total mental health

<Table 3> The effects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of inter-parental conflicts (N=730)

Measured Variables	B	SE	β	t	R ²	F
Frequency	-.10	.05	-.11	-1.97'	.20	24.48***
Strength	.01	.04	.01	.31		
problem-Solving	-.09	.04	-.11	-2.10'		
Content	-.09	.05	-.10	-1.92		
Perceived Threat	-.04	.03	-.05	-1.08		
Dealing with Efficiency	-.22	.04	-.23	-5.43***		
Self-Condemnation	-.05	.04	-.05	-1.04		
a Three-Cornered Relation	.03	.03	.04	.93		
Total	-.52	.04	-.43	-12.87***	.18	165.74***

*p<.05, **p<.01, ***p<.001

<Table 4> The effects on Mental Health of resilience (N=730)

Measured Variables	B	SE	β	t	R ²	F
Control over colony	.04	.04	.03	.93	.42	181.05***
Positivity	.52	.03	.55	15.46***		
Sociality	.14	.03	.13	3.62***		
Total	.77	.03	.61	20.76***	.37	431.23***

*p<.05, **p<.01, ***p<.001

<Table 5> Mediating verification of resilience (N=730)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F	Sobel's Z-Value
1	Inter-Parental Conflicts →	Resilience	-.37	.03	-.39	-11.41***	.15	130.21***	Z=10.75
2	Inter-Parental Conflicts →	Mental Health	-.52	.04	-.43	-12.87***	.18	165.74***	
3	Inter-Parental Conflicts →	Mental Health	-.27	.03	-.22	-7.39***	.41	258.86***	
	Resilience →	Mental Health	-.66	.03	.52	16.93***			

*p<.05, **p<.01, ***p<.001

3.3 부모의 부부갈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부부갈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부부갈등 전체는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3, p<.0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갈등의 하위변인 분석결과, 빈도($\beta=-.11, p<.01$), 문제해결($\beta=-.11, p<.05$), 대처효율성($\beta=-.23, p<.001$)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며($\beta=.61, p<.001$), 총 3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 분석결과, 긍정성($\beta=.55, p<.001$)과 사회성($\beta=.13, p<.001$)이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부모의 부부갈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회복탄력성이 부모의 부부갈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절차에서 표준화계수와 수정된 R^2 이 사용되었다.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단계별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beta=-.39, p<.001$)을 미쳤다. 2단계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beta=-.43,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의 부부갈등과 매개변인 회복탄력성이 동시에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부모의 부부갈등($\beta=-.22, p<.001$)과 회복탄력성($\beta=.52, p<.001$)은 모두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부갈등이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져야 하는데, 3단계에서 유의하게 감소($\beta=-.43 \rightarrow \beta=-.22$)하여 회복탄력성이 부모의 부부갈등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Z=10.75$ 로 나타나 Z 값이 $+1.96$ 이상, -1.96 이하의 범위에 존재하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부부갈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전, 충청권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부부갈등,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정신건강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의 부부갈등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과 관련한 유사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16,19,21]도 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거나[39], 하위변인에 따라 다양한 성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향후 성별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이혼집단이 다른 집단(초혼, 재혼, 기타)보다 부모의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부부갈등을 연구한 논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6,21]. 또한 부부갈등과 자녀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40,41]에서 이혼 자체보다는 이혼 전과 후에 발생하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정신건강, 대인관계, 이성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혼 자체보다는 부부갈등 요인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회복탄력성에서는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이는 다양한 연구[32,42]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탄력성의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한 바를 뒷받침한다. 또한, 정신건강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신건강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국내의 선행연구들[41,43]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 우울 등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고 주장한 바를 지지한다[19]. 또한,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높았는데,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근로활동은 자녀에게 지속적인 일관된 관심과 지도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결과와 유사하다[44].

둘째, 부모의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 갈등이 많고 적대적이며, 부모 간의

불화가 잦아질수록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문제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45,46]의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갈등의 하위 요인에 따라서는 문제해결, 대처능력, 갈등의 빈도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부부갈등의 빈도가 잦아질수록 자녀는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정감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47], 빈약한 갈등 해결 능력은 더 잦은 갈등으로 이어져 가족 내에 긴장감을 가져오고[48], 부모 간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자녀들은 가정에서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46]. 류승희[16]의 연구결과에서도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스스로 갈등상황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고 지적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분석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46,47]. 청소년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자살시도 보호요인으로 설명되었고[46],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과 정신건강에 회복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47]. 이는 회복탄력성이 정신건강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성과 사회성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또래관계가 높은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이 높다는 결과[48]와 긍정성이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49]와 유사하다.

넷째, 부모의 부부갈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부부갈등과 정신건강 사이에서 회복탄력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환경의 역경요인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50]의 결과와 일치하며, 부모의 부부갈등 자체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이를 받아들이는 관점과 반응에 따라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촉발요인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배움과 알아차림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결과[20]와 유사하다. 즉, 부모의 부부갈등 자체보다는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매개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결과를 제시한 것이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 자체보다는 자녀가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역경이 단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상담 접근이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불안, 수치심, 정서조절력 등과 같은 정신건강 하위 항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요인인 부모의 부부갈등과 개인요인인 회복탄력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전, 충남지역의 일부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이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개인 상담과 집단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더불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정책적 개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의 부부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부상담 및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Kazdin, A. E. "Adolescent Mental Health preception and Treatment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Vol. 48, No. 2, pp.127-141, 1993.
- [2] O. B. Chung. "Development Psychology." Haksisa, 2004.
- [3] Korea Foundation for Health Promotion, "Perceptions

- and Realities of Youth Health.” 2013.
- [4] H. S. Seo.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Suicide Thinking.” Ph.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2006.
- [5] Sang-Chul, Han, A-Mi, Jo, & Sung-hee, Park. “Adolescent psychology.” Seoul : Amphibians, 1997.
- [6] S. Y. Ju, & Yang-Hee,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for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4, pp.103-139, 2011.
- [7] Schonert-Reichl, K. A., & Muller, J. R. “Correlates of help-seek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5, No. 6, pp.705-731, 1996.
- [8] J. Y. Kim. “The Relationship among Loneliness,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in the Era of Digitaliz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9, pp.335-342, 2017.
- [9]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The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 71, No. 3, pp.543-562, 2000.
- [10] Y. O. Park, & S. S. Han. “ A Study on the Marital Conflict with Relation to the Family Life Cycle.” The Journal of Management of Korean Families, Vol. 5, No. 1, pp.33-49, 1987.
- [11] H. J. Kang, & J. Y. Yu. “Korean Urban Husband and Wife’s Marital Fight, Marital Fight-Coping Behavior, and Marital Satisfaction - Focused on married men and women liv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8, No. 2, pp.61-84, 2003.
- [12] Richman, N., Steavenson, J., & Graham, P. J.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ral study.” London: Academy press, 1982.
- [13] O. N., Kim, “Parents’ marital conflict, coping, mental health and behavior problem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4, No. 4, pp.99-119, 2005.
- [14] Y. H. Kim, & J. M. Lee. “The influence of parent’s conflict on children’s & adolescent’s self-esteem and maladjustment.” recreational study, Vol. 6, No. 1, pp.95-114, 2002.
- [15] M. S. Hong. “The Impact of Parent’s Marital Conflict Pattern on Self-concept of Adolescent.” Ph.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2012.
- [16] J. Y. Kim, & H. S. Jang. “The effect of marital violence on juvenile delinquency: applic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Vol. 10, No. 2, pp.69-93, 2016.
- [17] M. K.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s’ Anxiety.” Child Association of Korea, Vol. 33, No. 5, pp.163-180, 2012.
- [18] Gryth, J. H., & Finchman, F. D.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2, pp.267-290, 1990.
- [19] S. J. Lee, “The effect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children conflict on adolescent problematic behaviors.” Ma. dissertation, Dongsin University, 2014.
- [20] E. H. Son, “The Influences of Perceived Marital Conflict and Ego-Resilience on Peer Relatio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Ma.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2009.
- [21] K. H. Ki, & K. S. Kim. “An Analysis on the Resilience of the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who Experienced Parents Los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7, No. 3, pp.15-36, 2016.
- [22] H. K. Yang. “The Effect of Risk Factors on Youth’s ego resilience.” Ma.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2010.
- [23] J. Y. Seo, “A study of the influence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adaptation : focusing on resilience.” Ma.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2.
- [24] Roff, J., Masten, A. S., Cicchetti, C., Nuechterlein, K. H., & Weintraub, 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25]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The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 71, No. 3, pp.543-562, 2000.
- [26] Y. Y. Huh.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of adolescents experiencing parental loss.” Ma.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12.
- [27] Gjerde, P. F., Block, J., & Block, J. H. “Egocentrism and ego-resilienc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spective-taking from early child 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2, pp.423-434, 1986.
- [28] S. W. Park. “Relation among Daily Stress, Eho-resilience, Hope and Social Support Affecting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Ma.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29] J. H. Kim. “Resilience: A pleasant secret that turns trials into good luck.” Wisdom House, 2011.
- [30] Y. H. Jeong, & Kyung-Hee, Lee. “Effect of Verbal Abuse Experience, Coping Style and Resilience on Emotional Response and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u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391-399, 2016.

- [31] H. C. Choi. "Moderating Effect of the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Employees with Mentally Disable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431-439, 2017.
- [32] Masten, A. S.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6, No. 3, pp.227-238, 2001.
- [33]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ren'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Vol. 63, No. 3, pp.558-572, 1992.
- [34] Y. O. Kwon, & J. D. Lee.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hild Association of Korea*, Vol. 20, No. 1, pp.115-133, 1999.
- [35] Kopta, S. M., & Lowry, J. L.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behavioral health questionnaire-20: A brief instrument for assessing global mental health and the three phases of psychotherapy outcome." *Psychotherapy Research*, Vol. 12 No. 4, pp.413-426, 1997.
- [36] M. S. Park.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suicidal risk group, and application of group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Ph. 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2005.
- [37] W. Y. Shin, Min-Gyu, Kim, & Joo-Han,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Korean adolescent research*, Vol. 20, No. 4, pp.105-131, 2009.
- [38]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1173-1182, 1986.
- [39] M. S. Hong. "The impact of parent's marital conflict pattern on self-concept of adolescent.", Daegu University, Ph.D. dissertation, 2012.
- [40] G. E. Lee. "Study of the influences that parenting behavior of divorce family adolescent's adaptation." Ma.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8.
- [41] Y. S. Han. "The effect of parent's divorce and conflict on university students' mental health and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differentiation." Ph.D.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2017.
- [42] K. S. Kim. "The Influence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on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Child." Ma.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2013.
- [43] I. S. Kim, & Kyung-Nim, Kee. "Parent Attachment, Peer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7, No. 2, pp.97-113, 2004.
- [44] S. G. Lee. "Identifying and Predicting Patterns of Healthy Behaviors Among Elementary.",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Vol. 26. No. 2, pp.251-271, 2015.
- [45] S. H. Oh, & Gwi-Yeon, Byun.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Dismantled Family's Functional Characteristic on Adolescent Depression and Scholastic Achievement."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 Union*, Vol. 14, No. 14, pp.83-106, 2008.
- [46] S. J. Ahn, Eun-Hee, Park, Hyun-Ju, Hong, Jung-Eun, Song, Ki-Whan, Yook, & So-Eun, Kim, "The role of Resilience as a protective factor for suicide in Adolescent Patients with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2, No.2, pp. 351-366, 2013.
- [47] E. K. Sohn, Eun-Yeong, Choi, & Maria, Kong,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Impact on the Mental Health of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mart Phone Addiction Risk", *Korea Association for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23, No.2, pp. 439-457, 2016.
- [48] S. N. Su.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Style and Peer Relationship on the Mental Health of Early Adolescent Athletes." Ma. dissertation, Chung-Ju University, 2017.
- [49] E. Y. Kim, In-Hyae, Park, Youn-Kyung, Kim, & Chong-Mi, Lee,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On the Mediating Effects of Optimism and Emotional Regul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5, No. 2, pp.373-388, 2015.
- [50] J. A. Cho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s and School Adjustment." Ma.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2.

조 아 라(Jo, A Ra)

[정회원]



- 2017년 2월 : 한남대학교 사회문화 행정복지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상담학 박사과정 재학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정신건강

▪ E-Mail : arajo9233@naver.com

양 명 숙(Yang, Myong Suk)

[정회원]



- 1990년 12월 :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 뒤셀도르프 대학교 심리학과 (철학박사)
- 1992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집단 및 가족상담, 발달

▪ E-Mail : msyang@hnu.kr

전 지 경(Jeon, Ji Kyung)

[정회원]



- 2004년 2월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 석사
- 2011년 8월 : 한남대학교 상담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상담심

리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가족상담, 정신건강

▪ E-Mail : jeonjikyung@gmail.com